



“超音波이용기술 보급에 注力할 터”

- 人体에 安全한 検査방법으로 各광

『超音波검사는 人體의 질환을 진단하는데 放射線被曝의 위험이 전혀없고 고통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非侵襲의인 진단방법으로 얻어지는 진단정보가 크기 때문에 이제 진단의학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분야로 各광을 받고 있습니다』

大韓超音波醫學會 金周完회장(서울대 방사선과 주임교수)는 초음파는 주로 生體내의 구조를 볼 수 있게하는 수단으로서 초음파의 짧은 펄스를 生체 에 들여보내서 조직경계면으로부터 돌아오는 반사파에 의하여 生체내 부구조를 표출함으로써 의학의 진단용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한다.

초음파검사는 50년대 초반에 B-mode 영상 개발로 인해 내부의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된 이후부터 임상에도 도입되기 시작하여 여러 질환의 진단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주로 병의 진단에 사용되며 수술시 부위를 찾아낼때도 활용되고 있다고.

따라서 초음파의학은 초음파발생장치를 써서 뇌종양, 간장종양, 심장이상의 발견은 물론 초음파의 집중투사방법등을 이용하여 치료를 행하는 의학분야라고 설명한다.

초음파검사는 특히 산부인과영역에서 임신 여부나(4~5주부터 알아냄) 태아의 발육상태, 위치, 기형여부, 성별감별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不妊여성 해결을 위한 人工수정의 경우 초음파진단기없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렇듯 초음파검사는 진단의학에서는 없어



◇ 金周完회장

서는 안될 분야로 등장하였으나 뼈나 개스가 있는 부위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초음파진단의 약점이라고 밝힌다.

그러므로 폐질환진단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복부검사의 경우 장내에 대량의 개스가 있거나 비대한 사람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는 것.

『초음파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자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음파검사는 검사자의 머리와 손끝에 따라 진단결과가 좌우되므로 올바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검사에 임해야 비로소 정확한 진단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지요』 崔소장은 X-ray나 CT촬영등은 검사자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으나 초음파검사는 검사자에 따라 진단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므로 초음파진단기의 올바른 이용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金회장은 이 초음파진단기가 웬만한 병원에는 거의다 보급되어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이용기술이나 의료기사 양성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한다.

『초음파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物理의 기본원리를 터득해야할 뿐만 아니라 해부·병리학지식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하지요』 金회장은 한국과학기술원의 朴松培박사를 주축으로한 초음파연구팀이 고작일 정도로 초음파에 관한 전문연구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초음파진단기를 생산하는 곳도 KAIST에서 연구하던 몇몇 연구원이 모여 설립한 <주>메디슨밖에 없다고 아쉬워한다.

金회장은 이 분야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대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진단기생산에 참여하는 한편 선진의국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분야 연구가 수행되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한다.

『이제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환자의 가슴에 청진기를 들이대듯 환자 진료시 필수적인 진단방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金회장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초음파진단기의 보급단계에서 벗어났으므로 앞으로는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金회장은 초음파진단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이나 장비를 中央化해서 공동활용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함께 관련用語의 보급 또한 중요한데 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는 초음파用語集의 발간을 위해 용어의 통일화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힌다.

大韓超音波醫學會는 지난 80년 초음파의학의 연구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문교류를 통해 초음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그동안 초음파이용기술 보급은 물론 초

음파에 대한 홍보에도 힘써왔다고.

특히 방사선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일반의사, 학자, 공학자 및 산업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초음파의학의 연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대강화에도 노력해 왔다고 말한다.

『현재 회원 대다수가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공계학자와 의료기사, 산업체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産·學·研이 함께 어우러져 초음파의학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작정입니다』 金회장은 이와 함께 국제학회에서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한다.

金회장은 오는 92년도에 열리는 아시아초음파의학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대회니 만큼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갈 작정이라고 밝힌다.

학회는 또 초음파를 전공하는 의사 및 의료기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으로 양적확대에도 힘쓰고 우수교재 발간은 물론 대학에서 초음파를 강의하는 교수들을 위한 강좌와 함께 일반회원들을 위한 연수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CT촬영기의 도입가격이 5~7억원인데 비해 초음파진단기는 2~3천만원이면 가능할 뿐더러 환자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않는 안전한 진단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초음파진단기의 보급 및 활용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金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초음파진단기는 2천여대이나 앞으로의 잠재수요가 5천여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므로 모든 의사들이 이 초음파진단기를 올바르게 이용할 줄 알아야 비싼 외화를 낭비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유용한 진료기기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權光仁 記〉